



지 역 세 쉼 편 지

예술혼이 숨쉬는 고장 : 남원

이선남 | 남원시 홍보전산실

충절의 고장 남원, 자랑스런 조상들의 발자취

남원의 역사가 문헌기록상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685년 신문왕이 5소경 중의 하나인 남원소경을 설치한 뒤 1,300년 동안 남원이란 지명이 유지되었다. 남원은 조선중기 실학자 이충환이 '택리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리산의 높이와 깊이만큼 땅이 두텁고 기름져서 사람이 살기 좋고, 백성들은 풍년이니 흉년을 모르고 살았던 곳'으로서 남원사람들은 오랫동안 복받은 고장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외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다. 남원은 군사적 요충지인 동시에 지리산지역과 전라좌도의 행정, 정치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면 곧 경상우도와 전라좌도를 제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지역마저도 쉽게 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아막성 전투, 고려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했던 황산대첩, 정유재란 때의 남원성 혈투, 동학혁명 당시 김개남 장군이 이끈 동학군과 관군의 여원치 싸움, 6·25전쟁 때의 빨치산 전쟁 등이 그 대표적 실례다.

특히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왜군 5만 6,000여 명을

맞아 남원관군과 1만여 명의 백성이 한덩어리가 되어 끝까지 항전하다가 모두 목숨을 바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외침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잡은 남원에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선열들의 얼이 황산대첩비, 만인의총, 교룡산성, 충렬사와 같은 유적들로 곳곳에 남아있다.

한민족 최고의 고전문학, 춘향전과 흥부전의 산실

김시습이 한문으로 지은 '금오신화'의 '만복사 저포기'에는 남원부에 살던 늙은 총각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다가 이기고 부처로부터 소개받은 처녀귀신과 얼마 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나 헤어진 뒤에는 홀로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 남자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라면 '춘향전'은 여자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두 소설이 모두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만복사 저포기가 한문으로 쓰여진 탓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소개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춘향전은 국어로 적혀서 골고루 읽혔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창극으로도 만들어져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남원' 하면 누구나 춘향

이를 떠올릴 만큼 춘향이는 남원을 대표하는 문학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원에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춘향에 얽힌 사적지가 이곳저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황희 정승이 편액을 썼다는 광한루, 이도령과 춘향이의 첫 만남이 이뤄진 그네터, 백년가약을 맺은 월매의 집, 춘향의 영정이 있는 춘향사, 수증누각인 완월정, 지리산 육모정 계곡에 있는 춘향의 묘, 이도령과 애절한 이별의 정을 나눈 오리정, 눈물방죽과 옥중시비, 버선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광한루원 맞은편 관광단지에서 춘향촌이 조성되었는데, 이곳에서 임권택 감독이 영화 '춘향뎐'을 촬영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세워진 이곳은 조선조 민가 서민문화를 재현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까지 광한루원을 비롯한 관광단지, 승월교(무지개 분수), 춤추는 음악분수, 춘향촌 등을 아우른 춘향테마파크로 개발될 예정이다.

춘향전, 만복사 저포기 외에 남원시와 연관된 또 하나의 고전은 흥부전. 흥부전의 산실 남원시 인월면 성산마을은 흥부가 태어난 곳이며 아영면 성리마을은 놀부에게 쫓겨나 떠돌던 흥부가 정착하여 복을 누리고 살던 곳이다. 두 마을에는 연비봉, 흥부네 텃밭, 화초장바위, 허



황산대첩비와 피바위(사적104호) 황산은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휩쓸며 악탈을 일삼는 왜구를 크게 물리친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77년에 세웠다. 근처에는 왜장 아지발도가 이성계의 화살을 맞고 죽을 때 흘린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를 피바위라 한다



사랑의 광장 전국에서 보기 드문 춤추는 음악분수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조형물, 조명,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야외특설무대에서는 토요국악상설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재, 연하다리, 복덕촌 등 흥부전에 나오는 여러 지명이 남아 있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의 고증을 통해 지난 1992년 흥부발복지로 지목된 이래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음력 9월 9일 흥부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사투리의 구수한 맛이 배인 판소리

전라북도 방언권 안에서도 완주 토박이들은 남원 말을 특징있게 보고, 남원 안에서도 평야지대 사람들은 고원지대인 운봉말을 특이하게 생각한다. 방언권은 행정구획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방언의 차이가 생기는 요인도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라북도 방언의 특징을 판소리의 사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곳은 판소리의 원진지이기도 하거니와 흔히 '판소리는 전라도 말로 불러야 제 맛이 난다'고 하니 말이다.

동편제의 본향 남원은 악성 옥보고가 지리산 운봉에서 거문고를 완성, 전수하며 만년을 보낸 곳이다. 또한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 송홍록과 아우 송광록, 박초월, 강도근, 안숙선, 강정숙 등 걸출한 국악인들이 태어나 소리를 익힌 곳이기도 하다. 남원에는 전국 지방 유일의

국립민속국악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민속국악의 연구와 함께 공연을 상설화하고 있어 화젯거리다. 누구나 토요일 오후면 국립민속국악원, 춘향문화예술회관, 광한루원, 음악분수대 특설무대에서 판소리, 농악, 가야금 병창, 실내악 연주 등 국악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음악분수대 주변 사랑의 광장에는 '동편제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판소리 다섯 마당과 판소리용어 해설비 등을 세워 일반인들이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편, 판소리 못지 않게 손끝이 매운 남원사람들은 도자기, 목기, 부채, 상, 한지 등을 만들어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멋을 일구고 전승해왔다. 3대째 담뱃대를 만들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황영보 씨는 백동연죽으로 유명하고, 조선조 500년 동안 왕실의 제기를 진상할 만큼 이름난 목기는 지금도 전국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원인들의 예술혼은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 저포기 등 남원의 기름진 문학적 토양은 1990년대 최고의 민족대하예술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고(故) 최명희 씨의 5부작 10권의 소설 「혼불」로 이어진다. 작가는 세상을



남원목기 지리산 자락에서 자생한 산오리목, 물푸레나무 등을 재료로 장인의 정교한 공정을 거쳐 제작한 목기는 색상과 모양, 내구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롭지 않고 오래도록 변색하지 않는 남원의 명품이다



뱀사골 고로쇠 뱀사골 고로쇠약수는 칼슘, 칼륨, 망간, 마그네슘 등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비의 약수로 불려지고 있으며 매년 봄 경칩을 전후하여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열린다

떠나고 없지만 소설의 무대인 사매면 노봉, 매안마을이 '혼불'의 거리로 조성되어 문학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원인의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남원은 전통축제의 고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문화축제인 춘향제를 비롯하여 흥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열리는 흥부제, 그리고 지리산 바래봉·봉화산 철쭉제, 고로쇠약수제, 황산대첩축제, 삼동굿놀이, 용마놀이 등은 남원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진 '신명의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남원에서는 해마다 5월 5일을 전후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예술제로 그 명성을 얻고 있는 춘향제가 열리고 있다. 1931년 남원 권번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모금운동을 벌여서 춘향사당을 건립하고 그해 단옷날에 제사를 지낸 것이 춘향제의 시초가 되었는데, 현재는 양력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춘향선발대회, 그네뛰기, 창극 춘향전, 전국명창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광한루원 등지에서 펼쳐진다.

특히 '창극 춘향전'은 지방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1일 북한 평양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또 춘향선발대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동포들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많은 미녀들이 참가하는데, 배우 오정혜 씨가 대표적인 대회 출신이다. 올해로 제71회를 맞는 춘향제는 전국10대 문화관광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어 오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치러진다.

착한 남원사람들의 큰잔치인 흥부제는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가 흥부전의 발상지로 고증되면서 1993년부터 열렸다. 흥부의 착한 마음씨와 형제애를 널리 본받게 하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9일(제비가 강남으로 떠나는 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창극 흥부전, 길놀이,

이,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박공예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남원은 지리산의 빼어난 경관을 살린 사계절 생태관광·문화축제가 줄을 잇는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는 매년 5월에 열리는데 전국제일의 철쭉꽃이 장관을 이룬다. 10월에는 가을 지리산의 백미인 뱀사골 단풍제가, 3월 우수·경칩을 전후해서는 고로쇠 약수제가 열린다.

또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마을의 풍년과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삼동굿놀이가 음력 7월 백중날에, 이성계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운봉 황산대첩제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개최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

남원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광한루원에 연지 뱃놀이 시연, 암행어사 마패마당 등 풍성한 볼거리를 조성해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금년에 총사업비 85억 원 중 국비 등 36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게 될 춘향테마파크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작으로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흥부마을 지난 1992년 인월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가 흥부전의 발상지로 고증되면서 음력 9월 9일 흥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춘향테마파크 주변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도까지 향토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우선 올해 16억 원을 들여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지리산 연계권 개발을 위해서는 1998년 10월부터 장수, 구례, 곡성, 함양, 하동, 산청군 등 지리산권 7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영호남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지리산권을 포함시키는 등 이 지역 40만 주민의 힘을 모아 문화관광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부골 자연휴양림 조성과 홍부마을을 상징하는 소공원 조성, 아래봉 철쭉지 주차장 확충 등 홍부골 가꾸기사업과 함께 체계적인 관광세일즈망 구축을 위한 관광발전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관광열차운행, 대학생MT, 초중고생 수학여행 유치 등 4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요즘 남원에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리산주변 운봉골프장 건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환영하는 사람들과 지리산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입

장 등 남원시의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에는 매일같이 네티즌들의 찬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시점에서 지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지만 관광객 증가와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가 절실한 남원경제의 상황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또 다른 남원의 자랑, 민주적인 시행정

인구 11만 명의 남원시를 이끌고 있는 최진영 시장은 30대의 젊은 시장이다. 그는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남원을 파리나 로마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꾸미고자 분주하다. 취임 후 시장실을 청사 1층 민원실 옆 작은 방으로 옮겨 어느 때라도,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진력하여 전라선 철도이설, 폐기물처리시설, 공설운동장 건립 등 시의 현안사업들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그간 남원도심을 관통하는 전라선 철도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노선 변경으로 신·구 남원역사 주변이 동시에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리시설도 4월이면 첫 삽을 뜨게 되며 착공 1년째를 맞는 공설운동장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시민건강증진과 대규모 체육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최 시장의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참여를 이끌어내 남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종합행정실적 평가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00년도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평가받아 2억 원의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최 시장은 이런 성과에 만족치 않고 올해 시정 제1의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35개 시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 국토 서남부 내륙권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도약을 선언하였다. 7



바래봉 철쭉 지리산 바래봉을 중심으로 3~4km에 이르는 산등성이에는 전국 제일의 철쭉꽃이 장관을 이룬다. 이국적인 푸른 목초지와 누구나 쉽게 오르내리는 등산로 등 가장 아름다운 5월을 보고 즐길 수 있다